

“재난위험시설 정비 특교세 지원을”

전북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 건의...긍정적 반응 얻어

전북도가 정부와의 상생·협력 통한 재난안전 분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 전북 만들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전북도청에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과 함께 '국민안전처-전북도가' 함께 하는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구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전북도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박 장관은 먼저 장기 풍화작용으로 도로변 낙석붕괴가 우려되는 김제 금산면의 급경사지 정비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해방기를 맞이해 낙석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공사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송 지사를 포함한 재난관리 관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도의 안전관리 현황과 올해 도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목표 관리제' 추진방안 등 안전관리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도는 향후 3년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지난 3년의 17.4%(지난 3년간 화재, 교통, 자살 감연병 등에 의한 연평균 안전사고 사망자수 1,279명)에 해당하는 222명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도의회 행차위 현장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양성빈)는 24일 동부권사업현장인 남원 관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지를 방문,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들은 동부권 사업 관계자인 도 기획관리실장과 관광총괄과장, 남원시 부시장, 총무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동부권사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성빈 행정자치위원장은 “동부권 사업이 올해로 6년차로 접어들고 있지만 사전절차 미흡으로 사업비가 아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동부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주민소득과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기자



2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왼쪽 2번째)이 김제시 금산면 급경사지 정비사업장을 김제시청 관계자 등과 함께 둘러보고 있다.

송 지사는 도의 안전관리 정책 설명과 함께 '재난안전 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지방-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도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박 장관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도의 재난감시 시스템인 '스마트리보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박 장관은 도가 요청한 지방교량 내진보강 사업, 완주 화산중리 선형개량 사업 등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향후 정책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2016년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책임도는 높이고, 사망자는 줄이는

안전혁신 '성과창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그동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무실역행 전북도정' 실천을 위해 수차례 협업을 강조한바 있는바 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도 정책공유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도, 국내 생산 탄소소재 응용제품 전국 지자체 구매 활동 나서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탄소소재 응용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전북도가 국내 공공기관은 물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구매 지원 활동에 나섰다.

24일 전북도는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을 비롯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3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탄소소재제품의 공공구매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공기관의 공공구매를 위해 소개되는 제품들은 탄소발열벤치, 볼라드, 탄소난방필름 등 지난 2월 한국

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 개발된 탄소소재 제품 2종이다.

이 중 탄소발열벤치 등 일부 제품은 이미 도내 시·군과 타 지역에 공공구매를 통해 사용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공공기관에 판매 활동시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못한에 따라 실제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지난 해부터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5억6,000만원을 투입해 6개품목의

구매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 탄소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국내 탄소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 올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공기관 대상으로 국내 생산 탄소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탄소 기업의 전국 시장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내 탄소기업 제품을 확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도, 지자체 최초 '소비자권익증진상' 수상

전북도가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의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수상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단체협의회장단은 도에 방문에 도지사 접견실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전달했다.

'소비자권익증진상'은 한 해 동안 소비자중심의 입법과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소비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증진하기 위해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라북도(송하진 도지

사)가 선정됐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김기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지사는 “전북도가 지역민의 소비자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단체 지원, 소비자불만제로화 사업, 소비자리더(leader)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소비자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새만금청-엔청시 경제교류협력 MOU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과 중국 장쑤성 엔청시(시장 왕평핑(王平平))가 24일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협력 협정서(MOU)에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이 필요한 사항과 교류협력사업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 기관 간 경험 및 정보교류, 관광지역 내 상대방 투자 유치활동과

관련한 행정지원·편의제공 등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협정서 체결은 지난 해 10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장관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신단대 상지역으로 한국 측은 새만금을, 중국 측은 엔타이·엔청·광둥성을 지정한 데 이어 대상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영수기자

도, 과수산업 강화 113억 투입

시설 현대화·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등 지원

전북도가 올해 도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4일 도는 예담체, 남원조공, 장수조공 등 3개 권역 주체에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113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경쟁력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 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 SS분무기 등 장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도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권역별 사업시행주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예정인 농가에 대해 관수, 관광, 품종갱신 등에 85여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10ha 이상 우수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경작로 개설, 용수개발, 과원경지 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자한다.

이외 '예담체'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에 매년 30여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

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체계에서 벗어나 유통경쟁력 출하실적이 있는 농가에 대해 현장 노동력 절감을 위해 SS분무기 등 장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도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권역별 사업시행주체에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예정인 농가에 대해 관수, 관광, 품종갱신 등에 85여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의 경우 10ha 이상 우수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경작로 개설, 용수개발, 과원경지 정리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5억원을 투자한다.

/정영수기자

스피치·응변·면접·리더십·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만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